

## 일본해에 관한 호칭 문제(미 의회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) 개요

2005년 7월

일본 외무성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, 미 의회 도서관이 소장하는 14세기부터 19세기에 발행된 지도에서,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.

그 결과, 일본해 해역에 관한 언급이 있는 지도는 1,436 점이었다. 그 중 77%가 [일본해]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더불어, 이번 조사 지도 중, 19세기에 발행된 지도의 82.4%에 해당하는 1,059 점이 [일본해]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. 특히, 19세기 중에서도 일본이 쇄국 정책을 행한 시대에 발행된 지도 563점 가운데 74%에 해당하는 417 점이 [일본해]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, [일본해]라는 호칭은, 일본이 쇄국 정책 하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 초엽부터 서구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.

주:한국 측은 “[일본해]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,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”라고 주장하며,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미 의회 도서관에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근거로 들고 있다. 한국 측에 의하면, 일본해 해역에 관해 표기한 고지도 103점 중, 66%에 해당하는 68점이 [조선해] 또는 [동해]로 표기하고 있었고, [일본해]라고 표기한 고지도는 14%에 해당하는 14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.